

숲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이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숲에서 배웁니다.
숲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어주죠.
산림청은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하고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forest.go.kr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MAGAZINE 숲

소나무 통고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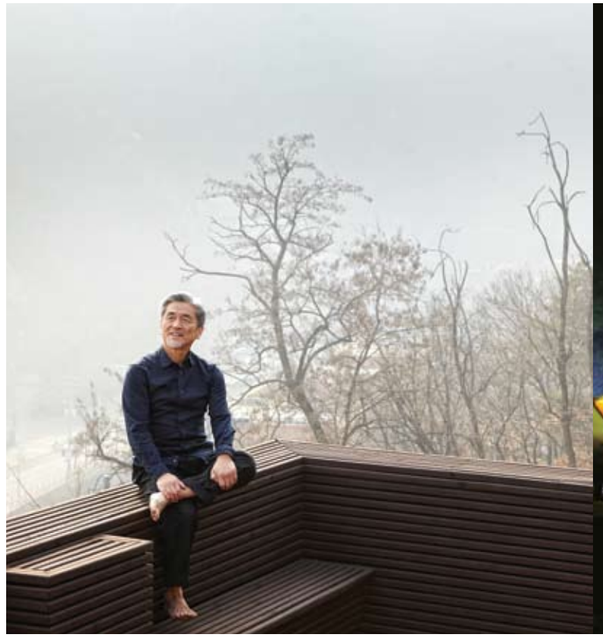
VOL. 04
JANUARY
FEBRUARY
2015

1/2

ISSN 2383-6849

CONTENTS









08

특집 | 통고산과 소나무

04 테마
이 땅, 이 모든 곳의 소나무
소나무에 대한 단상

06 여행
영원히 지지 않을 푸름의 향연 소나무의 숲으로 가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12 역사
단종의 설움을 묵묵히 보듬어주다
청령포 관음송

16 문화
소나무 곡선에 깃든 미학
정동주의 소나무와 곡선

20 인포그래픽
소나무 잠시 알고 가실게요!
소나무 정보

22 생태
소나무를 부탁해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대책

24

24 세계의 숲을 만나다
네팔 히말라야
라리국립공원
오지탐험가 김성선

26 산 그리고 사람
시는 내 인생을 말하오
나는 그저 시로 삶을 노래할 뿐이오
소리꾼 장사익

30 비밀의 정원
얼음 뚫고 피어난 생명이
하얀 설원 위를 수놓다
백서향과 복수초

32 아트테라피
손끝으로 나만의 정원을 완성하세요
순천만 정원

34 어떤 날 숲
숲에 사랑 한 스푼을 더하다
판교 화랑 공원, 대구 앞산 공원

38

38 캠핑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여유와 낭만을 그대에게
유명산 자연휴양림

42 라이프 스타일
느리게 사는 즐거움,
자연과 벗하는 집을 짓다
이상묵 빌더의 목조주택 이야기

46 그린테이블
나물인 듯 나물 아닌 나물 같은 너
방풍나물 오믈렛, 고사리 밀쌈말이

48 인생학교, 숲
처음 만나는 숲
"아가야, 넌 특별하단다"
숲태교, 탄생목 심기

52 독자코너
독자들의 이야기

42

VOL. 04
JANUARY / FEBRUARY
2015

MAGAZINE 숲

발행일 2015년 2월 25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편집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042.861.3133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김병구, 엄지민, 이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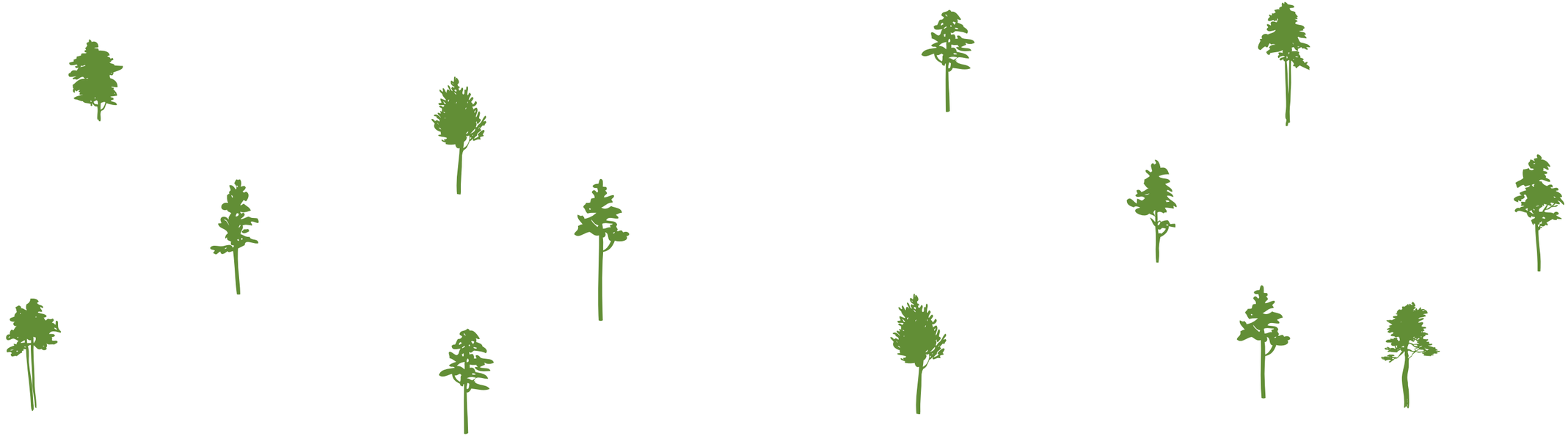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문화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설명
사시사철 늘 푸름을 전해주는 소나무는, 겨울이 되면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되죠.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magazine 숲〉은 우리 소나무의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소나무를 보고 느끼며 소나무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아이패드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땅, 이 모든 곳의 소나무 松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단연 소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절개와 의지의 상징이기도 한 소나무는 충과 의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민족에게 매우 의미가 깊죠.
그렇기에 소나무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나무로, 우리 곁에 뿌리내렸습니다.
예술작품에서도 소나무는 빠지지 않는 소재였습니다. 김정희, 김홍도, 솔거 등 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들이 소나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곤 했죠. 게다가 임금이 앉던 용상 뒤편에도 해 · 달 · 산 · 물과 함께 늘 소나무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니, 소나무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심과 사랑은 깊고 넓었던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네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 가지를 꽂아 태어났음을 알리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 살면서, 소나무 장작을 태워 지은 밥을 먹고 살다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죽는다'고도 하죠. 이렇듯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과 어우러져 살아온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소나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년 내내 푸르른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소나무의 푸른 빛을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각종 환경오염과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 이 민족과 가장 오래 함께 해 온 나무이자 우리 땅에 가장 많이 뿌리내린 소나무. 우리의 소나무가 이 땅에서 영원히 푸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곧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지키고 우리의 푸른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푸름의 향연 소나무의 숲으로 가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금강소나무숲길 제3구간)

40여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소나무의 숲.
이 꽁꽁 숨겨졌던 비밀의 숲이 열린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숲이 제 모습을 쉽게 보여주리라는 법은 없다.
오로지 약속된 자에게만 열리고 '호기심'과 '설렘'이 준비되어야만
진정한 숲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금강소나무숲길'이다.

500여 년 소나무의 숨결

금강소나무숲길이 위치한 곳은 경북 울진. '등허리 굽어 손 안 닿는 곳'이라는 옛말이 있을 만큼 울진은 오지 중의 오지라고 칭한다. 그 덕분인지 금강소나무숲길로 들어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차로 달린지 30여 분, 드디어 그곳에 당도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공간에 무한히 펼쳐진 금강송을 마주하는 순간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1,600ha에 걸쳐 조성된 소나무숲길에는 200~300년 된 소나무만 해도 8만 여 그루, 500년 된 소나무도 5그루나 된다. 어른 두 명이 껴안아도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굵은 소나무들이니, 이 숲 속에 뿌리내린 역사가 어마어마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금강송을 '글'로만 배웠다. 그렇다면 금강송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금강송, 금강송'하는 것일까? 금강송은 줄기가 곧고 마디가 길며 껍질이 유별나게 붉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결이 곱고 단단하여 소나무 중에서도 최고 중의 최고라 여겨진다. 그렇기에 금강송 앞에서는 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소나무라 할지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금강송의 가치는 '보존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조선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400년이 넘은 금강송 관의 나이테가 뚜렷하게 보전되었다는 점과 600년이 넘은 봉정사 극락전이나 경복궁의 목재로 사용했던 금강송을 다시 자재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 가치가 어머어마하다.

이런 독보적인 특징 때문에 금강송은 궁궐의 기둥이나 왕실의 관을 만들기 위한 귀한 재료로 사용됐다. 특히 숙종(재위 1674~1720)은 금강송을 보존하기 위해 황장봉계표석(黃腸封界標石)을 세우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런 관리를 통해 200~500년 이상의 소나무들은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푸르게 보전될 수 있었다. 또한 1959년에는 국내 유일의 '육종림'으로 지정된 후 민간인의 출입이 오랫동안 금지됐었다.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6년으로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은 탐방객에 한해 개방되고 있다.





숲길에 마음 맡기며, 솔 냄새 따라 '타박타박'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으로 이틀을 미루고 찾은 곳이었다. 소복이 쌓인 눈, 새 하나 울지 않는 정적만이 감도는 이곳에 오로지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가득하다. 금강소나무숲길의 관리사를 지나면 이제 진짜 탐방의 시작! 그러자 이내 안도현 시인이 금강송을 노래한 시비(詩碑)가 설레는 탐방의 마음을 두드린다.

"소나무의 정부가 어디 있을까? 소나무의 궁궐이 어디 있을까? 묻지 말고,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로 가자!" 그래, 바로 이곳이 소나무의 나라 '금강소나무숲길'이다. 제대로 금강송의 진면목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으리라.

시비를 지나 조금 걷다보니 금강송 전시관이 나왔다. 일반 소나무와 금강송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판재, 단면목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실제 전시된 소나무 절단면을 비교해보니 확연하게 그 차이점을 알겠다. 금강송의 나이테가 일반 소나무에 비해 더욱 조밀하게 형성돼 있고, 바깥쪽의 변재보다 안쪽의 심재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다. 금강송이 그만큼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다. 여유롭게 그리고 온 세상을 너그럽게 관망하며 자라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전시관에서 얼마 가지 않은 곳에는 이곳에 뿌리 내린 굵직한 금강송이 사람들을 반긴다. 수령 500여 년을 자랑하는 우람한 체구의 '오백년 소나무'이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새겨진 흔적들이 오롯이 남아 있다. 거기에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아남았을 강인함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오백년 소나무를 지나면 임도 좌우로 금강송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100년 후의 숲을 대체할 금강송 후계림 조성구역을 볼 수 있다.





1. 금강송은 일반 소나무에 비해 바깥쪽의 변재보다 안쪽의 심재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재질이 단단하다. **2.** 임도 좌우로 펼쳐진 소나무로부터 솔향기가 가득히 풍겨온다. **3.** 금강송을 보존하기 위해 세운 '황장봉계표석'

4, 5. 금강송의 특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곧게 뻗어 올라간 줄기가 마치 우리 민족의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다. **6.** 금강송의 껍질은 마치 거북이의 등 같아 보인다. 젊고 싱싱한 것일수록 몸통의 껍질이 붉다. **7.** 어린 금강송의 푸르름에 미래가 느껴진다.





식재된 어린 금강송이 언젠가 이곳에 푸름을 더하며 우람한 어른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혹시 '연리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던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으로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자연현상의 모습이다. 금강소나무숲에서는 연리지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소나무와 졸참나무가 똬리를 튼 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사실, 조금 더 가파른 경사에 있는 금강송이 졸참나무에 기대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속설에 의하면 소나무는 양수로 남자를, 졸참나무는 음수로 여자를 상징한다고 한다.

직접 마주한 금강소나무숲길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고 고고했다. 세찬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지 사이로 빼꼼 새어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잎을 보고 있자니, 그야말로 절개와 굳은 의지의 상징답다. 소나무들로 무성하게 우거진 숲길을 천천히 걷다보니 눈밭 위로 멧돼지 발자국들이 낭자하다.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 할 것 없이 촘촘하게 많이도 남겨 놨다. 눈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맘때쯤 찾지 않았더라면, 마주하지 못했을 풍경이었을 것이다.

소나무 숲의 겨울을 조우하다

산 능선과 절벽에 붉은 수피의 금강송이 병풍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있다. 자신을 이곳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굽을 줄도 모른 채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만 쭉쭉 뻗어있는 것이다. 마치 이 숲길의 주인임을 과시하듯.

곳곳에 자리한 독특한 소나무를 마주하다 보니 쏠쏠한 재미가 쏟아진다. 수령 500년이 넘은 '못난이 소나무'가 비탈길에 애련하게 서있다. 단지 이름이 주는 쓸쓸한 풍경일 뿐, '소나무가 못생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못난이인 이유는 용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 뿐 미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멋진 소나무이다. 또한 금강송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미인송'도 만날 수 있다. 하늘 높이 곧게 뻗어 있는 가지, 붉은 빛을 띠는 표피 등 금강송의 특징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금강소나무숲길에는 오로지 건강한 금강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검게 타버린 소나무도 번개를 맞아 줄기가 갈라진 나무도 모두 이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금강송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오르다보니 이제 이 숲길의 정상 '관망대'이다. 금강소나무숲길이 한 눈에 조망되니 산천에 흰 눈꽃이 만발한 그 모습은 그야말로 '수묵화'가 따로 없다. 소나무의 싱그러움에 더해진 하얀 눈꽃의 향연. 나지막하게 익숙한 노랫말이 귓가에 맴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네 빛 /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 치는 날에도 /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네 빛"

이렇게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를 노래하는 가사말도 있지 않던가. 꽃들은 한 잎씩 흙으로 가고 애틋한 그리움만이 움트는 이 겨울날, 가장 푸름을 내뿜는 금강송이 이곳에서 눈부심을 선사하고 있다.

1시간 30여 분 남짓 오르내리니 숲길 탐방이 끝이 났다. 매일 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숨겨져 있던 건강한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았다. 그러자 내린 눈이 녹은 뒤 따뜻한 봄이 되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굳센 예감이 스며들었다.

"아침에 한 나무가 일어서서 하늘을 떠받치면 / 또 한 나무가 일어서고 그러면 / 또 한 나무가 따라 일어서서 / 하늘지붕의 기둥이 되는 / 금강송의 나라"가 언제나 푸르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에.





Information

탐방예약
현재 숲길은 산불예방기간으로 4월 30일까지 입산이 통제되었으며 5월에 개방
*금강소나무숲길 사이트 :
http://www.uljintrail.or.kr/

찾아가는 길
1구간 :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1리 232번지
3구간 :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2리 657번지
(전체 탐방로는 총 5구간이지만 현재는 1구간, 3구간만 탐방이 가능하다.)

탐방인원
'예약탐방 가이드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구간별 하루 80명만 선착순으로 탐방이 허용된다.



단종의 설움을 묵묵히 보듬어주다

청령포 관음송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에게 치유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단종은
치유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나무에서 찾았다.
나무는 단종에게 자신의 가지를 내어 주었고 그는 나무에게 위로 받았다.
지금도 단종이 유배된 청령포에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관음송(觀音松)'이 역사를 간직한 채 우뚝 서 있다.

일러스트 | 정윤미

나룻배에서 내린 단종은
그곳에 홀로 남겨졌다.
섬 안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푸른 강,
조촐한 처소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몸은 홀로 외딴섬에 갇혔지만
그 덕분에 표현의 자유는 해금되었다.
그곳에서 단종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화내고
울어도 괜찮았다.



칼끝은 단종에게도 향하였다. 수양대군은 1455년 단종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를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한다. 그리고 2년 후, 세조(世祖)가 된 수양대군은 단종의 복위 운동인 사육신(死六臣) 사건을 빌미 삼아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냈다. 당시 단종의 나이 열하고 일곱이었다. 이때 정순왕후 송씨도 '부인(夫人)'으로 강등되어 단종이 유배된 강원도 영월 땅을 바라보며 평생의 한을 달래다가 세상을 떠났다.

청령포로 유배길에 오른 단종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멀고 먼 영월 땅으로 유배길에 올랐다. 자신의 모진 인생을 탓하며 창덕궁 대조전에서 유배교서를 가지고 한양을 떠났다. 1456년 음력 6월 22일, 돈화문을 출발한 그의 여정은 한강나루를 지나 남한강 뱃길을 따라 계속되었다. 검은 물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영월 땅에 도착하는 데 꼬박 닷새가 걸렸다. 마지막 고개인 배일치 고갯마루에서 단종은 매무새를 다듬고 사육신을 향해 고마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배일치를 넘고 물길을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이 바로 '청령포'이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만 꼬박 이레가 걸렸다.
그가 기거할 영월의 청령포는 푸른 서강(西江)이 삼면을 휘돌아 흐르고 서쪽에는 층암절벽이 병풍을 이루고 있었다. 육지이면서도 외딴 섬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청령포로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 나룻배가 아니면 드나들 방법이 없는 천혜의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육지고도(陸地孤島)', 단종은 그곳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나룻배에서 내린 단종은 그곳에 홀로 남겨졌다. 섬 안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푸른 강, 조촐한 처소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몸은 홀로 외딴섬에 갇혔지만 그 덕분에 표현의 자유는 해금되었다. 그곳에서 단종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화내고 울어도 괜찮았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숙부에게 배신당하고 죄인의 처지로 유배생활을 했던 단종. 그가 남긴 한편의 시에 적막강산에 홀로 남겨졌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영월과 비운의 단종

강원도, 그 중에서도 영월은 첩첩산중이다. 사방으로 도로가 뚫린 21세기에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쉼 없이 지나야 한다. 그렇게 영월은 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영월이 이런 오지인 탓에 조선시대 정치인들은 종종 그곳으로 유배를 떠났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인 단종이 유배를 떠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단종은 1441년(세종 23년) 조선 5대 왕 문종(文宗)과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9세에 왕세자가 되기까지 단종은 순탄한 삶을 누렸다. 암울한 운명은 그의 나이 11세에 아버지 문종을 여의면서 시작되었다. 문종의 붕어로 왕에 즉위하였지만 일을 수행하기에 그의 나이는 너무 어렸다.
어린 왕의 즉위는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정치에 나설 수 있는 더 없는 구실이자 기회였다. 먼저 수양대군은 형 문종이 유탁한 김종서 집을 습격, 그와 아들을 처단했다. 이른바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이후 동생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유배 보낸 후 사사했다. 형제의 싸움에서 승리한 수양대군의



"천추의 원한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적막한 영월 땅 황량한 산속에서
만고의 외로운 혼이 홀로 헤매는데
푸른 숲은 옛 동산에 우거졌구나
고개 위의 소나무는 삼제에 늙었고
냇물은 돌에 부딪혀 소란도 하다
산이 깊어 맹수도 득실거리니
저물기 전에 사립문을 닫노라"

단종의 설움과 애환을 보듬어 준 관음송

단종은 종종 숲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에 걸터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구한 운명을 탓했다. 슬픔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그곳의 나무들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들은 단종의 처절했던 유배생활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단종의 몸과 마음이 어느새 나무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나무는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소년을 위해 자신의 줄기를 내주었고 어린 임금이 겪은 반역과 치욕의 울분을 보듬어주었다.

청령포에 들어간 지 두 달째, 여름내 비가 오더니 홍수가 되어 청령포를 덮쳤다. 단종의 처소가 홍수에 잠기자 유배지는 영월 부사의 객사인 관풍헌(觀風軒)으로 옮겨졌고, 그해 10월 단종은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단종이 죽은 뒤,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영월의 호장(戶長)이었던 엄흥도가 한밤중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산속으로 도망가다 한 마리 노루가 앉아있던 곳을 발견하였다. 사방은 눈으로 덮였지만 그곳만 흙이 드러나, 명당이라 생각한 그곳에 단종의 시신을 묻었다.

후에 사람들은 그가 걸터앉았던 나무에 관음송(觀音松)이라는 이름을 붙여 있다. 노산대는 단종이 매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는 곳으로 그곳에 오르면 청령포가 한눈에 들어온다. 강으로 둘러싸인 푸른 소나무 숲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단종은 유배지에서도 '나는 왕이다'를 되뇌며 왕가(王家)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 배신과 한 맺힌 반역의 세월을 돌아보며 그는 척박한 환경을 홀로 견뎌 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관음송이 있었다. 그저 묵묵히 단종이 쏟아내는 탄식과 멍울진 슬픔을 바라보며 보듬어 주었을 관음송. 관음송에 기댄 단종의 등줄기에는 그를 향해 내뿜은 치유의 에너지가 가득했으리라.

관음송은 단종이 겪은 반역과 치욕의 세월을 치유해 주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단종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주었듯, 지금도 누군가를 치유해주기 위해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땅한 상대가 없다면 청령포 숲으로 가보자. 그곳엔 단종의 아픔을 함께 해준 치유의 소나무, 관음송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주었다. 말 그대로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觀) 단종의 슬픈 소리(音)를 들었다는 뜻이다. 관음송은 나라의 큰 일이 날 때마다 나무껍질을 검은색으로 바꾸어 변고를 알려주었다. 이런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1988년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되었다.

그 숲을 걷다보면 치유의 나무가 기다린다

단종이 울분과 회환 그리고 외로움으로 몸부림칠 때 그를 지켜주고 위로해 주었던 관음송. 청령포 숲 한가운데 솟아있는 관음송은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소나무가 됐다. 실제 나무의 높이는 30m, 줄기 둘레는 5m이지만 주변의 소나무와 대조되어 훨씬 더 커 보인다.

관음송은 둘로 나뉜 줄기가 옆으로 뻗은 잔가지 없이 위로만 솟구쳐 자라있다. 관음송 곁으로 자라난 소나무들 때문에 가지를 옆으로 펼칠 수 없었던 탓이었고, 그늘에서 솔잎을 내어봐야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침엽수 특유의 생존방식이 드러난 모습이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자란 관음송은 노거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생육이 왕성하고 전형적인 금강송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청령포 숲 안쪽에는 관음송뿐만 아니라 200~300년생의 소나무들과 이제 갓 자라나고 있는 소나무들로 빽빽하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량한 공기는 이곳을 거니는 이들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준다. 청령포의 숲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산책길은 노산대까지 이어져

관음송

나이는 6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높이 30m, 가슴높이 둘레 5.19m의 크기로 1.6m되는 높이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위로 하나는 서쪽으로 기울어서 자라고 있다.



청령포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강원도 기념물 제5호이다. 동, 남, 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어 그 절경이 일품이다.



소나무 곡선에 깃든 미학

한국 조형의 아름다움인 선의
예술성에서 말하는 '곡선'을
가장 절묘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소나무'이다.
야박하게 내치지 않고 옹졸하게 떠밀거나
매몰차게 외면하지도 않는다.
소나무의 곡선은 이런 한국인의 마음과
마음 풍경을 존재하게 하는
미학적 바탕이 되었다.

글 | 정동주 (동다헌 시자(東茶軒 侍者), 시인)

구불구불한 한국 소나무

모든 수목의 형태는 수목이 살고 있는 토양의 성분, 토양층의 두께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토양층은 대부분 매우 얇게 이루어진 노년기 지형이어서 소나무 형태가 구불구불한 것이 많다. 이는 뿌리를 깊숙하게 뻗어 내릴만한 땅심 좋은 토양층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즉 뿌리로 빨아올리는 수분과 양분이 넉넉하면 줄기가 곧게 뻗어 오르지만, 거칠고 메마른 토양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키가 작고 구불구불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 땅 어디를 가든 이런 구불구불한 소나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소나무를 바라보면 함께 살아온 한국인의 심성과 기질이 소나무의 생김새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마을과 소나무의 생김새

오래전부터 농경문화를 일궈온 한국의 전통적인 집과 마을의 모습은 소나무가 울창한 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는 강이나 시내를 보듬고 있는 형태를 띤다. 마을 뒷산은 순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선으로 흐른다. 깎아지르는 듯한 낭떠러지나 화살촉 같은 산봉우리 아래 마을이 들어선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둥그스름한 소나무처럼 생긴 산 아래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집 짓는 주된 재료들도 대부분 그 산의 소나무였다. 마을의 초가지붕 곡선은 뒷산을 닮았고, 산과 집들은 절묘하게 포개지고 어우러진 모양이다. 그런 집들의 기둥, 보, 도리, 서까래도 수직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것들이 더 많다. 재력과 명성이 높은 양반 사대부 집은 직선의 굵은 소나무를 건축재로 썼지만, 서민들의 건축재는 구불구불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지은 초가는 곡선들의 융합체가 된다. 초가지붕은 사방 어디에서 봐도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초가들로 이루어진 동네는 곡선들의 어우러짐이 만들어낸 따뜻함,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껴안고 다독이며 함께 살아온 삶터다. 집을 에워싸고 있는 싸리나무 울타리, 흙 담장도 곡선이며 담장과 담장 사이로 난 골목길도 곡선이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실개천, 도랑물, 강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면서 느리게 흘러간다.

밭두렁도 곡선이다. 들판 한가운데로 지나는 들길이나 산 아래를 지나 고개를 넘는 산길도 모두 곡선처럼 구불구불 이어진다. 마을 뒷산에서 뻗어나가는 산능선이나 산골짜기 마다 소복소복 펴놓은 작은 들판도 하나같이 부드러운 곡선에 기대어서 고요하고 풍요롭다.

이처럼 마을과 집의 형태에서 보이는 곡선을 가장 절묘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나무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곡선들은 소나무가 지녀온 원초적인 곡선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이자 삶이다.

이뿐만 일까. 우리 민족의 전통가구들만 봐도 소나무의 곡선을 닮아있다. 우리는 가구를 만들 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살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구에는 나무 그대로의 결이 살아있으며, 아름답고 균형있는 곡선의 미를 드러낸다. 이는 소나무를 닮고자 했던 한국인의 마음이자, 한국인의 멋이다.

1.



소나무는 포옹이며 포용이다

곡선은 느림의 모성을 품고 있다. 곡선은 품어 안는 것이며 결코 내치지 않는다. 미움조차 껴안아 삭히는 깊고 넓은 포옹이며 포용이다. 또한 야박하게 내치지 않고 매몰차게 외면하지 않는다. 물질로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정신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곡선의 미학이다. 또한 곡선은 따뜻함이다. 한국인 생활과 심성 속에 깊이 배어있는 따뜻함의 정서는 음식, 주거, 언어, 사상, 무속, 혼인, 장례 등 생활 전반을 지속시키는 마음이다.

소나무의 곡선은 한국인의 풍경을 존재하게 하는 미학적 바탕이다. 소나무는 곡선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치솟고 날아오르는 수직선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도 한다. 하늘을 향하여 곧게 날아오르는 속성과 전체의 역학적 균형을 위해 곡선 형태를 취하고 있는 속성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한국 소나무의 곡선이다.

또한 소나무의 형태를 보면 곡선과 수직이 공존하고 있다.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수직의 형태이며, 웅크려 있을 때에는 곡선이지 않던가. 소나무 역시 구불구불한 곡선 모양이면서도 때가 되면 거침없이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박차고 오르려는 직선으로 느껴진다. 이는 소나무가 지닌 힘의 상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불구불한 소나무 모양을 곧게 자란 소나무에 비교하여 못생겼다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소나무의 굽은 선은 매우 비기하학적인 것으로 저절로 얻어진 신묘한 선이다. 이러한 한국 소나무의 멋을 그대로 이해하려면 서구의 합리적, 논리적 사고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떨어져서 바라봐야 한다. 소나무의 구부정한 선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인식은 곧 역사와 생활 속의 경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소나무의 뿌리와 흙의 관계처럼, 우리네 삶과 역사의 각박한 터전에서 함께 해 온 생존의 이웃이며 길동무인 것이다.

가끔 굽고 뒤틀린 채 모진 풍상을 겪고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노라면 눈시울이 적셔질 때가 있다. 통한과 좌절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절규하던 우리 민족의 애통함, 한국 역사를 되씹고 곱씹을 수밖에 없는 것도 소나무의 곡선에서 전해 받은 감정이다. 될 수만 있다면 곧은 소나무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누가 그 굴곡지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의 날들을 다시 살고 싶어 하겠는가. 우리 민족이 걸어온 삶의 역사는 기나긴 갈등의 역사이며, 고통의 역사였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기에 그저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소나무의 곡선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자연과 하나가 되며 포용과 겸손을 상징한다. 곡선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득을 얻기 위해 좁고 가파른 길만 쉴 줄도 모르고 내닫고 있다. 소나무는 그런 우리마저 포용하며 깊게 안아줄 것이다.

2.



3.



용아생가(龍兒生家)

시인 박용철이 태어난 곳으로, 곡선의 미학이 건물 곳곳에서 두드러진다. 초가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나무의 곡선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볏짚으로 덮은 초가지붕에서도 곡선의 단아한 품위가 엿보인다.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46번길 24
문의 : 062-944-1340

1. 나무의 특성을 살린 전통가구에서도 소나무 곡선의 미를 느낄 수 있다. **2. 3,** 들판 한가운데로 지나는 들길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실개천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며 이어진다. 그렇게 곡선에 기댄 풍경은 하나같이 고요하다. **4.** 용아생가. 조선 말기의 주택으로,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3호이다. 고택들만큼 크고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초가지붕의 곡선에서 부드러움과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 여행스토리텔러 김종길 4.매거진숲0102내지출2

4.



소나무를 말하려니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
절개와 의지의 상징 소나무, 불로장생의 소나무.
소나무를 표현하는 말도 상징하는 말도 참 많아
그저 가깝고 친근하게만 느껴진다.
그렇지만 우리, 소나무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소나무 잠시 알고 가실게요!

소나무의 생태

소나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로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지만, 특히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더욱 잘 자란다. 소나무 줄기는 높이 20~35m에 이르며, 겨울에도 항상 푸른빛을 유지하는 '상록수'이다. 나무 껍질은 거북등처럼 세로로 넓게 갈라지며 줄기의 밑 부분은 회갈색, 윗부분은 적갈색을 띤다. 바늘잎은 8~9cm 길이로 두 개가 한 묶음이 되어 가지에 촘촘히 붙어있다.

이름의 유래

으뜸이라는 뜻의 '수리'가 변한 우리말 '솔'에서 유래한다. 나무 중에 최고라는 뜻이다. 그런데 소나무를 '송'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진시황제가 길을 가던 중 소나기를 만났는데, 마침 그 길에 있던 소나무 덕에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진시황제는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소나무(木)에게 벼슬(公)을 내렸고, 그 이후 '벼슬 있는 나무'라는 의미로 '송(松)'이라 불린다.

네 이름이 뭐니?

소나무는 생긴 모습, 지니고 있는 색,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줄기가 붉은
적송(赤松)



둥근 모양의
반송(盤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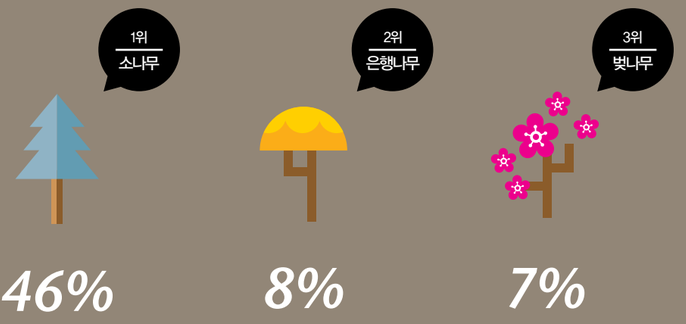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처진소나무



바닷가 주변에서 자라는
해송(海松)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4위 : 단풍나무 6%
5위 : 느티나무 4%
6위 : 동백나무 1.9%
7위 : 편백나무 1.8%
8위 : 대나무 1.7%
9위 : 메타세콰이어 1.4%
10위 : 버드나무 : 1.3%

*2014년 10월 2일~29일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면접조사
*상위 10위까지만 제시, 한국갤럽

소나무 서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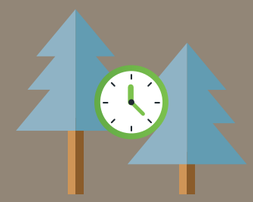
낮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1,600m 이하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란다



1,600m 이하

소나무 평균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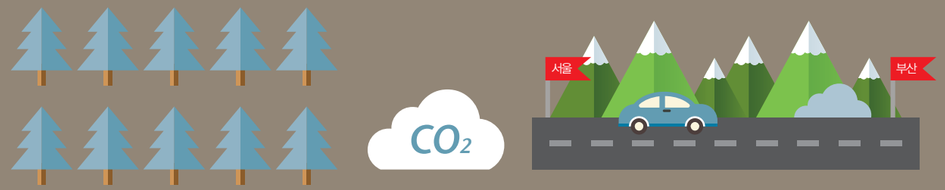
보편적으로 500~600년
우리나라 최고령 소나무는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2호, 수령 600년)



500~600년

소나무 숲 온실가스 상쇄 수치

30년생 소나무 10그루 :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하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저감



30년생 소나무 10그루 =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소나무를 부탁해!

길을 걷다보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소나무.
우리에게 흔한 식물인 소나무가 다른 나라에서는 '희귀식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 예로 러시아에서는 소나무를 희귀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나무가 희귀식물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기후변화와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
소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글 | 오승환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장)


1.

어디서나 잘 자라는 소나무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지방 · 산동반도, 일본 시코쿠 · 규슈 · 혼슈, 러시아 연해주의 동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생육한계지점은 해발 1,300m이다. 한라산의 경우 해발 1,800m에서, 육지에서는 대부분 해발 1,300m 아래에서 자라고 백두산에서는 해발 300m 이하에서만 자란다.
소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심근성(深根性) 형태를 가지며 지표면을 따라서는 수평근도 자란다. 이 수평근 때문에 암반 노출지나 토심이 얕은 산 능선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소나무의 신기한 점은 '솔방울'이라고 부르는 구과가 2년 만에 열린다는 것이다. 보통 4월과 5월에 꽃이 피면 수꽃의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암꽃에 수분이 된 후 다음해 4~5월에 솔방울이 달리게 된다. 이 솔방울이 성숙하면 날개가 2개 달린 종자가 밖으로 날아가 새로운 소나무가 된다.
소나무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다. 생육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암석지대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평지에서도 잘 자란다. 다만 소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햇빛'과 '토양'이다. 햇빛이 잘 들고, 낙엽층이 없는 광물질 토양에서 종자 발아율이 좋다.

소나무도 결혼을 한다?

삼척의 준경묘 소나무 숲에는 세계 최초로 혼례를 치른 소나무가 있어 그 명성이 자자하다. 이 혼례식은 충북 보은의 '정이품송'이 날로 수세(樹勢)가 약해져 혈통을 보존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정이품송의 배우자로 간택된 준경묘의 소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량한 형질을 가진 '미인송'이었다.
2001년 5월 8일 당시 신순우 산림청장이 주례를 맡아 희귀 찬란한 행사가 열렸다. 정이품송에서 채취한 꽃가루를 미인송 암꽃에 묻히고 다른 소나무의 꽃가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닐봉투로 봉했다. 이듬해 혼례식을 통해 교접에 성공한 솔씨들은 200여 그루의 아기 소나무로 태어났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묘포장에 보존되어 있다.

관심과 사랑을 소나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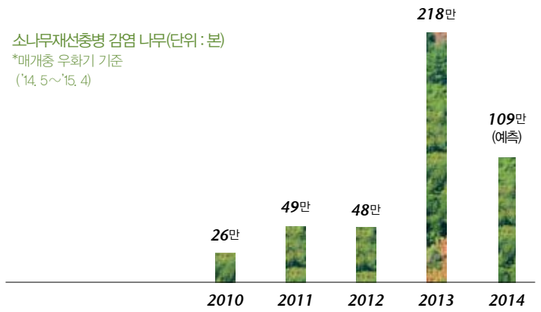
최근 소나무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큰 적이 나타났다. 실같이 가늘게 생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을 파괴시켜 고사(枯死)시키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감염 20일부터 잎의 증산량이 감소해 묵은 잎이 아래로 처지고 시들기 시작하며 감염된 당해에 80%가, 이듬해 3월까지 100%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진다.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갉아 먹을 때 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한 후 말라죽게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훈증 · 파쇄 ·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되는


2.


3.

소나무재선충병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1그루 방치 시 → 200그루 피해 발생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치사율은 100%
-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속도
  재선충병의 침입 → 6일 후 잎의 처짐 현상 →
  20일 후 잎이 시들기 시작→ 한 달 후 고사 진행



가운데,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피해지역을 조기 발견하는 한편,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위해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피해 고사목을 수집하고 사후관리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앞장서고 있다.
소나무는 많은 관심과 관리를 통해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산림자원이다. 산림청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때 소나무는 늘 푸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할 것이다.

1.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2.** 재선충 피해 고사목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방제는 조기 예찰에 의한 확산 방지가 최선책이다.

눈앞에 펼쳐진

라라국립공원의 비경에

햇빛도 바람도 그 어떤 소리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순간과 마주했다

타닥타닥

그때 들려온 체트리 부족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

광활한 자연과 함께 살며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들의

곱고 어여쁜 순간

– 네팔 히말라야 라라국립공원

사진 | 김성선은 산과 여행에 빠져 사진과 숲해설가 공부를 시작으로 국내 외 오지와 우리나라 해안선을 요트로 일주한 오지탐험가이다. 최근에는 히말라야 오지를 찾아가 어린이에게 학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행복한 탐험가로 활동중이다.

시는 내 인생을 말하오 나는 그저 시로 삶을 노래할 뿐이오

소리꾼 장사익

오래전 '찔레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흘러나오는 영상 속의 한 남자, 장사익이 열창을 시작했다.
깊게 패인 주름, 덩실거리는 춤사위로 그는 하얀 꽃 찔레꽃이 슬프다며 구슬프게 노래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하듯 읊조리던 그의 노래가 마음의 빗장을 풀며 눈시울을 적셨다.

소리로 삶을 노래하는 장사익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그이지만, 어쩐지 장사익은 '복잡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흔한 핸드폰도 TV도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구수한 사투리가 울려 퍼진다. 밥을 먹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더니 금세 대문 앞으로 나와 취재진을 반겼다. "어서오세유" 입에 착착 감기는 충청도 사투리, 웃음 지을 때마다 깊이 파이는 주름. 단번에 긴장을 무너뜨린다. 인터뷰가 있던 날이 마침 이미자 씨와 합동 공연이 있었던 그 다음날이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의 얼굴에서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제가 차는 안 좋아하는데 손님들 왔다고 폼 내는 겁니다. 차를 댓 잔은 마셔야 소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절한 목소리로 한국인의 마음을 울려온 장사익은 소박하게 차 한 잔 내밀며 자기 자신을 내주었다. 마흔여섯에 데뷔한 늦깎이 소리꾼, 그러나 그의 소리 인생 20년은 여느 절창에 못지않은 무게감을 지녔다.

어린 시절부터 한 길만을 걸어온 명인들과 다르게 그는 노래를 '업'으로 삼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장구재비인 아버지를 따라 소리판을 구경 다니며 국악을 몸에 익혔고, 웅변을 잘하고 싶어 산에 올라 소리를 지르며 목을 틔었다. 그렇게 저절로 음악이 그에게로 왔고 음악은 곧 그의 삶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곧 잘했는데 선생님이 웅변을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웅변을 잘 하려면 '목'이 좋아야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동네를 세 개의 산이 병풍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뒷동산이 삼봉산, 그 너머가 아차산,

그 뒤가 오서산이었습니다. 맨날 오서산 꼭대기에 가서 발성 연습한다고 소리를 내질렀죠. 어떻게 보면 웅변이 하나의 인연이 돼서 늦깎이 소리꾼이 됐는지 몰라요."

시가 곧 삶이요, 세상이다

지금의 소리꾼 장사익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보험회사, 무역회사, 카센터 등 15군데의 직장을 전전했다. 어떤 일도 길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때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에 익숙해져 갔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당시에 나훈아, 남진이 가요계를 휘잡고 있었어요. 문득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작곡가 학원에 등록해 음악을 배웠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악센트, 기교를 배웠죠. 그러다 군대에 입대하고 문화선전대에서 노래를 했어요. 제대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자고 마음먹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됐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에는 매제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취직해 사무장으로 3년 정도 일했어요. 문득 '내가 이렇게 살려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불었던 태평소가 생각났어요. 딱 3년만 제대로 해보자 하고 그 후부터는 태평소에 목숨을 걸었죠."

그때부터였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 같은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 태평소를 틈틈이 배우고 익혔던 장사익은 무작정 이광수 사물놀이패를 찾아가 "돈 안 줘도 좋다. 나도 좀 시켜달라"고 말했다. 그가 원한 것은 오로지 열정이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저 '열심히'했다. 열심히 했더니 행운이 엉뚱한 곳에서 그를 찾아왔다.

"사물놀이 공연을 마치고 뒤풀이에서 노래를 한바탕 했죠. 한 번 노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잇지 못하더군요. 그때 만난 친구 임동창이 나한테 공연 한 번 해보자고 제의를 했어요. 신촌의 작은 극장에서 공연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뀐 거죠."

그에게 있어 '직장생활'이란 길어야 고작 4~5년, 그런데 노래 인생은 흘러흘러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는 그제 서야 삶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내 길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온 존재의 이유구나." 소리 인생을 산 이후로 그는 그야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신명나게 노래 한 판 끝나고 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왔다. "맨날 웃고 즐거우니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 하회탈이 됐다"며 소탈하게 웃어 보였다. 그렇게 실패와 시행착오라는 벽돌을 장사익은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무심코 쌓아 올린 벽돌을 바라보니 어느새 자신만의 '집'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장사익이 부르는 노래는 정확한 장르로 구분 지을 수 없다. 시인이 써내려간 '시'에 운율과 장단을 바꿔가며 낭송하듯 읊조리기를 수백 번. 그렇게 거듭한 끝에 그는 자신만의 노래를 완성시켰다.

"시인들은 세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시인들이 그린 세상을 내가 동감하면 바로 그 시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음률과 장단을 붙이고 감정을 불어넣어 엮어 나가면, 바로 제 이야기고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1.


2.

1. 다양한 전통악기가 집 곳곳에 자리한다. **2.** 장사익은 소리뿐만 아니라 태평소와도 인연이 깊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이광수 사물놀이패에 찾아가 태평소를 불었다. **3.** 검은 먹물을 직접 준비해 온 뒤 정성스레 글씨를 써내려갔다. 그는 평소에도 한글 흘림체를 쓴다고 말했다. 그에게 서예는 낙서(落書) 아닌 락서(樂書)다.

산처럼 자연처럼

현재 장사익의 집은 북한산 끝자락에 위치한다. 그 앞으로 인왕산이 동네를 감싸 안듯 우뚝 솟아있다. 서울에서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는 또 한번 행복하다 말했다. 이내 창문 밖의 산을 가리키며 "독수리가 우리를 껴안고 있다"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위안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는 억겁의 시간을 살아온 저 거대한 자연에 비하면 고작해야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한다.

"산에는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살고 있지요. 나무는 자신 옆에 자라는 '가시' 또한 내치지 않습니다. 가시로 콕콕 찔러도 가만히 있지요. 이렇게 나무는 제아무리 뾰족한 가시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과 공생하며 살지요. 뿌리내린 자리에서 평생을 움직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생은 숲을 이루고 산맥을 이뤄 결국에는 세상을 이루지 않습니까? 인간이야 100년을 살 수 있지만 저것들은 수억 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에는 계절이 주는 낭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요. 산이 아름다움만 줍니까? 우리 삶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주고 겸손을 불어넣으니 산이 바로 선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기에 그저 앞만 보기 급급하다. 그러나 자연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침묵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행복이다. 그는 그렇게 자연처럼 묵묵히 흘러가기를 바란다. 소리 인생 어느덧 20여 년. 그의 꿈 또한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잘 사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즐기면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지금 60대 후반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노래를 할까,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노래를 할까, 예측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잘 살아야겠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차를 건네는 그의 뒤편으로 인왕산 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함이 연신 돌았다. 억겁의 시간 동안 모든 생명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푸른 산처럼, 오래도록 삶을 관망하는 자연처럼, 그의 음악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 곁에 '살아있기'를 바라본다.



얼음 뚫고 피어난 생명이 하얀 설원 위를 수놓다

백서향과 복수초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이지만 다른 계절이 다 지나고 추운 겨울에서야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란이 그러하고 전설 속에서나 나옴직한 한 겨울에 열매가 익는 겨울딸기가 그러하다.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은 예로부터 절개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슬픔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 저마다 제각기 오랜 전설을 품고 이 추운 겨울, 얼음을 뚫고 올라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야생화들. 산을 오르며 만나는 들꽃들이 주는 반가움과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랑을 품은 겨울 꽃, 백서향

겨울철 중산간 지역의 숲을 다니다 보면 은은하게 피어나는 달콤한 향을 맡이하게 된다. 진한 초록색의 잎과는 대별되면서 흰 꽃무더기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바로 백서향이다. 백서향은 팥꽃나무과에 속하는 작은 나무이다. 꽃은 암수딴그루이며 2~4월에 흰색으로 핀다. 향기가 진하게 나며 가지 끝에 모여 달린다. 백서향에 얽힌 전설을 통해 이 꽃의 향기를 추적해 볼 수 있다. 옛날 중국의 한 여승은 잠을 자다 꽃향기에 도취해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그 꽃향기를 따라가 보니 꿈속의 향기와 똑같은 흰 꽃이 피어 있었다. 여승은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 향기로 알게 된 꽃이라 하여 꽃의 이름을 수향(睡鄕)이라고 지었다. 그 후 사람들은 상서로운 꽃으로 여겨 서향(瑞香)이라고 불렀다. '꿈속의 사랑'이라는 꽃말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집의 현관에 백서향 한 그루만 있어도 그 향기는 온 집안을 그윽하게 한다.

백서향의 취향

베란다와 같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건조하면 잎이 떨어지고 습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는 토질이 좋다. 물은 흙의 표면이 말랐을 때 토양이 충분히 젖을 만큼 주는 것이 좋으며, 자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얀 얼음 위, 노랗게 물든 복수초

눈이 내린 한라산은 겨울 동안 모든 식물들이 겨울잠이라도 자듯이 고요해 쓸쓸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숲속의 적막함을 뚫고 노란 꽃봉오리가 피어나는데 이 꽃이 바로 복수초이다. 복수초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로 1~2월 사이에 노란색의 꽃이 피어나며 꽃잎이 많고 서로 겹쳐서 난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잎의 크기가 작아 꽃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복수초(福壽草)는 장수(長壽)를 상징한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은 이러한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렇듯 동양에서는 복수초가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되지만 서양에서는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꽃말은 아마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의 전설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는 매우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았으나 어느 날 산에서 멧돼지에 물려 죽는다. 이후 아도니스가 죽으면서 피를 흘린 자리에는 노란 복수초가 피어났다. 그의 죽음을 가엾이 여긴 제우스는 반년은 지상에서 아프로디테와, 반년은 지하에서 페르세포네와 함께 살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복수초는 가을과 겨울 반년 동안 지하에서 살다가 봄이 시작되자마자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지상에 나오는 것이라 전해진다.

복수초의 취향

4~5월까지는 양지바른 곳, 그 이후에는 그늘진 곳에서 관리한다. 특히 꽃이 필 때는 햇볕을 충분히 받게 하는 것이 재배 포인트이다. 기름지고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질이 좋으며, 백서향과 마찬가지로 흙의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과습만 시키지 않는다면 복수초에게 오케이!

Art Therapy

손끝으로 나만의 정원을 완성하세요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하루.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쉼'입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마련된 아트테라피.
한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눈으로 감상하고 손으로 색칠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나만의 정원이 완성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트테라피의 선을 따라 당신만의 순천만정원을 표현해보세요

세계5대 연안 습지를 품고 있는 순천만. 그곳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정원인 순천만정원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담긴 정원과 생태 및 문화, 세계 각국의 전통이 담긴 정원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숲에 사랑 한 스푼을 더하다

판교 화랑 공원과 대구 앞산 공원

소소하지만 특별한 데이트를 원하는
연인들이라면 사랑을 부르는 숲으로.
연인들에게 겨울의 찬바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기 좋은
매개체이다. 추운 날씨 때문에 괜스레
움츠러든 마음을 녹여줄
연인의 손을 잡고 숲 속으로 가보자.
걷는 것만으로도 일상 속
여행이 될 것이다.



연인과 사진 찍기 좋은 호수와 생태 학습원

운중천과 금토천 두 개의 하천이 합류되는 생태호수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들이 서식한다. 거기에 잔잔한 호수와 어울리는 억새와 갈대는 운치를 더해 연인들이 함께 사진 찍기 좋은 배경이 된다. 또한 호숫가를 따라 놓인 다리를 서로 손잡고 걷기에 좋다. 호수를 지나 화랑 공원 삼거리를 따라가면 생태 학습원이 있다. 이곳은 어린이들의 자연배움터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공간이긴 하지만, 때로는 '어린이'가 되고 싶은 연인을 위해 추천한다. 숲과 습지 등 생태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놀이까지 마련되어 있다.

볼거리 가득한 산책로와 다목적 광장

호수를 지나 다리를 건너면 숲 산책로가 나온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다양하다. 신갈나무를 비롯하여 소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를 비롯하여 일부에서는 벚나무나 무궁화나무 같이 사람이 키우는 나무도 있다. 이외에도 진달래 등의 관목이나 다양한 초본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 산책로를 지나면 판교 '젊음의 거리'로 통하는 광장이 나온다. 광장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재미있는 공연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화랑 공원의 옥상 전망대와 북카페

판교 환경에너지시설로 향하면 판교 크린타워에 북카페가 있다. 북카페에는 2천여 권의 신간도서가 갖춰져 있다. 건너편 휴게실 전망대로 가면 판교테크노밸리 단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청계산과 남한산성의 풍경이 펼쳐지고 가까이로는 화랑공원의 아름다운 산책로가 들어온다. 함께 독서도 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전망도 보면서 여유롭게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1. 화랑 공원은 일도 사랑도 열심히 하는 당신을 위한 공간이다. 생태학습원 내 '하안마을과 파란마을'은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전시체험관이다.



1.

판교 화랑 공원

IT와 숲의 어울림 '판교 화랑 공원'

빌딩숲과 자연숲이 나란히 함께 자리하여 색다른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화랑 공원. 이곳은 IT회사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을 짬내어 틈틈이 데이트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공원 근처에는 유럽형 테마거리 쇼핑센터, 백현동 카페거리, 맛집까지 하나둘씩 모여있어 연인들에게 '판교 데이트 코스'로 입소문이 나있다. 일도 사랑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연인들을 위한 공간, 화랑 공원을 소개한다.

Information

판교크린타워 북카페
오른쪽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왼쪽으로는 휴게시설을 꾸며놓은 북까페. 1735권의 장서 그리고 책상과 의자 32조, 검색용 PC 2대 등을 갖췄다. 또 음료 자판기, 정수기, 휴게 의자 등을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대구 전망이 한 눈에 '앞산 공원'

이제는 연애의 첫 번째 과정이 되어버린 '썸'. 썸만 타다 끝나지 않고, 진짜 연애로 발전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사랑 고백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할수록 그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것이 연애의 속설이다. 사랑 고백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전망 좋은 공원 앞산 공원을 소개한다.

설렘 지수가 올라가는 케이블카

대구 남구에 해발 660m의 앞산이 솟아있다. 앞산은 좌우로 산성산(653m), 대덕산(546m)을 거느리고 있고 이들 세 산 줄기의 북쪽 계곡에 조성된 공원이 앞산 공원이다. 대구에서 가장 큰 도시 자연공원으로 508만 평에 이른다. 앞산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참나무 숲, 잣나무단지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산기슭에는 궁도장, 승마장,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대덕동산은 조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상쾌한 숲 속 데이트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별이 빛나는 앞산 산성과 전망대

대덕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앞산 산성은 대구 기념물 7호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대구 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기다린다. 산줄기가 대구 시가지를 크게 감싸고, 서쪽으로는 S자를 그리며 흐르는 낙동강이 보인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대구의 야경은 도시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이곳 야경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의 7대 야경에도 속할 만큼 눈부시다. 그래서인지 야경을 배경 삼아 셀카봉을 들고 얼굴을 맞댄 연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3.


4.


2.

Information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타고 앞산 전망대에 오르면 대구 시가지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정상까지는 790m이며 첫 출발은 10시, 마지막 도착은 18시 30분이다. 대인 9,000원, 소인 7,000원이다.



손잡고 걷는 숲 속 자락길

전망대를 내려와 자락길로 향하면 여유를 갖고 산을 내려 갈 수 있다. 자락길은 넓게 펼쳐진 치맛자락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산로와 달리 경사도가 낮은 2~3부 능선을 따라 길이 나 있어 부담 없이 걷기 좋다. 고산골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달비골 청소년수련관까지 14km 구간에 걸쳐 6개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각 코스 간 거리는 1.5~2.9km로 가장 긴 코스가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취향과 체력에 따라서 길을 선택하여 산책하면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될 것이다. 산책 길 중간에 숲 속 작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데, 연인 두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기 딱 좋을 규모의 작은 서재까지 마련되어 있다. 산책길은 앞산의 계곡물을 따라 굽이굽이 나 있다. 연인과 함께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발 맞춰 걷다보면 금세 입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2, 3. 대구 시가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앞산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이 함께 사진 찍기 좋은 최적의 장소이다. **4.** 여유롭게 숲 속 자락 길을 걸어보자. 함께 흐르는 계곡물을 배경음 삼아 걷다보면 금세 입구에 도착할 것이다.

〈magazine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어떤 날 숲'은 매 호마다 한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숲으로 갑니다. 다음 호 주제는 '달이 잘 보이는 숲'입니다. 숲과 함께 동행할 독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독자 엽서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여유와 낭만을 그대에게

경기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

Enjoy Camping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 〈산경표〉에서는
유명산의 산봉우리가 '말들이 뛰어 놀던 곳'이라 하여
'마유산(馬遊山)'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의 유명산이라는 이름은 1973년 '엠포르 산악회'가
국토 종주를 하던 중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산을 발견하고 대원 가운데 진유명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동쪽으로 용문산(1,157m)과
이웃해 있고 약 5km에 이르는 계곡을 거느리고 있으며
산줄기가 사방으로 이어져있다.
얼핏 험해 보이나 능선이 완만해서 가족 산행지로도
적합한 곳이다. 가일리와 선어치고개 사이에 있는
'유명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욕장을 비롯하여
체력 단련장, 캠프장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캠핑은 이곳 유명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 본다.

캠핑 칼럼니스트 | 강대현

자연에서 느끼는 그 여유로움

유명산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은 시원한 청평댐을 지나 청평호수를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설악면 소재지에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의 길 또한 마치 고향길 같은 정취가 가득하다. 유명산 자연휴양림은 869ha의 넓은 면적으로 일일 최대 3,000명의 수용 인원을 자랑한다.

조금 이른 도착이 주는 즐거움일까. 나무들로만 가득한 이곳에서 여유로움만이 한없이 느껴진다. 텐트와 장비들을 대충 차려놓고 가볍게 주변을 둘러보러 나선다. 이곳 유명산 자락은 기암괴석과 계곡의 맑은 물을 따라 산행을 하면 완만하면서도 급한 등산로가 교차하여 지루하지 않다. 또한 숲 속의 각종 체력 단련 시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간직한 '용소'와 용문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합쳐져 생긴 '유명계곡'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제1 야영장에서 도보로 대략 10분 거리에 있는 제2 야영장은 차량 진입을 금하고 있어 주차장부터 손수레를 이용해 짐을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일반 방문객들의 접근이 덜해 제1 야영장보다 더 많은 한적함과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바로 앞의 넓은 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훌륭하다. 상대적으로 개수대와 화장실이 가까워 야영에도 무척 편리한 곳이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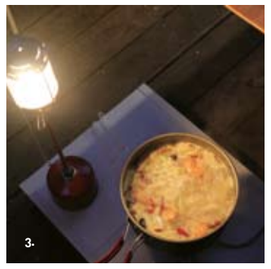
Information

이용안내

자녀와 함께 각종 부대시설(난대식물원, 향료식물원, 암석원, 자연학습원, 우리 꽃길, 습지식물원)을 둘러보자. 휴양림 이용자들에게 숲 탐방과 체험 방법을 안내하는 '무료 숲 해설 프로그램'도 신청하여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자연학습 체험교육'도 추천한다. 오감을 통해 식물과 숲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예약문의

홈페이지 : http://www.huyang.go.kr/
이용문의 : (031)589-5487


3.

1. 캠핑을 함께 즐기는 이들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2.** 겨울 캠핑을 위한 난방은 필수요소이다. **3.**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따끈한 죽으로 추운 몸을 달래본다.

오토캠핑장은 차량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다.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숲 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차량과 데크의 거리가 무척이나 가까워 보다 편리한 캠핑이 가능하다. 또한 이곳과 인접한 '산림문화휴양관'은 단체 이용객이 사용하는 '4인용(23~26㎡) 8실 · 5인용(29㎡) 4실 · 6인용 (39㎡) 6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캠핑을 즐기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계곡 따라 오르는 산행의 즐거움

유명산 산행은 총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등산로는 자연휴양림 관리 사무소에서 숲 속의 집까지 이어지는 임도를 따라 가다보면 '계곡길'과 '능선길' 두 가지를 만날 수 있다. 정상까지 빨리 다다를 수 있는 길은 능선길이지만 계곡길로 들어서면 박쥐소, 용소, 마당소 등을 지나는 계곡 산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계곡길을 오르다 보면 정상을 3.7km 남겨 둔 지점에서 '산책로 1km'라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 길은 자연휴양림에서 이어지는 산책로이다. 계곡을 거치는 코스는 정상까지 2시간 30분 정도이며 정상에서 동쪽으로 용문산과 백운봉, 북으로는 중미산을 조망할 수 있다. 산행에 자신이 없거나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라면 야영장에 마련된 데크로드를 이용하여 숲 체험 코스를 산책하는 것도 좋다.

이곳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자생식물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들이 집단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24,000평 규모에 목본 42종, 초본 322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산 자연휴양림은 휴양과 더불어 '자연교육'과 '생태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자연휴양림이다. 번잡하지 않은 평화로움과 숲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충만한 유명산 자연휴양림! 이번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즐겨보시라! 단, 원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사전 예약은 필수다.

Camping Tip

강대현 칼럼니스트의 캠핑 가이드

겨울철 또는 초봄 휴양림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강적 같은 추위가 휴양림을 휘몰아치지만, 거의 대부분 전기 사용이 불가능해 난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난방 용품은 반드시 구비하도록 한다.

❶ 침낭의 경우 영하 20~30℃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구스 다운은 충전재 함량이 1,200g 이상, 덕 다운은 1,500g 이상인 것으로 준비한다.

❷ 침낭 안에 넣어 사용하는 '핫팩'이나 뜨거운 물을 부어 보온 효과를 내는 주머니인 '유단포'는 필수로 챙겨 가야 한다. 핫팩은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양말 등에 넣어 사용하도록 한다.

❸ 휴대가 용이한 가스 스토브는 캠핑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스 스토브는 필요할 때 잠시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Profile

강대현 캠핑 칼럼니스트

네이버 캠핑 파워 블로그 '차칸늑대의 마주 보는 여행'을 운영한다. 국제 캠핑 페어, 코리아 아웃도어쇼, 현대백화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초보자를 위한 캠핑 입문 가이드'를 강연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울 어바웃 캠핑(도서출판 그리고 책)'이 있다.



1.

느리게 사는 즐거움, 자연과 벗하는 집을 짓다

이상묵 빌더의 목조주택 이야기

도시에서 살다보면 획일화된 시스템과 정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움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누구나 한번쯤 '귀농과 귀산(歸山)'을 꿈꿔 보지 않았을까?
깊은 산 속에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 앞에 조그마한 나무집을 짓고, 앞마당에는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귀산의 꿈 말이다.

1. 완성된 통나무주택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2.** 귀산을 결정하고 통나무주택을 짓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다.

귀산의 꿈

귀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 더군다나 내가 살 집도 직접 지어야 한다면? 지역과 택지에 대한 고민, 택지의 구입과 설계 인허가 과정, 재료 구매, 목공의 어려움, 경제적 사정 등 많은 문제와 고민에 귀산의 꿈은 스트레스로 바뀌기 쉽다.

다행히도 나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고향을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귀산의 꿈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고,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내가 향한 곳은 나의 고향 '함양'이었다. 그러나 귀산의 첫 시작인 땅 구입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원하는 땅은 너무 비싸거나 주인이 팔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원하는 땅을 꼭 구입하겠다는 의지로 땅주인에게 몇 번이나 부탁하고 흥정했다.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원하는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땅을 구입하고 나자 귀산의 꿈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됐다.

수 없이 반복됐던 설계 과정

귀산의 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준비했다. 특히 어떤 형태의 주택을 지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손수 지을 수 있는 '목조주택'을,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주택을 설계의 포인트로 맞췄다.

자, 그렇다면 목조주택이란 무엇인가? 목조주택은 주택의 주요 구조 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다시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단면이 2인치x4인치, 2인치x6인치 등의 크기를 가지는 각재를 사용하여 주요 구조부를 완성하는 '경량목조주택', 통나무를 가공하여 만드는 '통나무주택', 나무를 짜 맞추는 방식의 '팀버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목조주택 중에서 통나무주택으로 구조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포스트엔빔(기둥보구조)을 기본으로 하면서 노치와 그루브 가공이 혼용하는 통나무주택을 구상했다. 설계 과정도 무수히 번복됐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딛고 나오는 것 아니던가. 드디어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찾아온 기쁨이란!

설계의 완성과 함께 통나무주택 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근무하던 건설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통나무 학교에 등록했다.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한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2.

덕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정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 통나무주택 공부에 몰입하면서 여러 기술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캐나다 출신의 기술자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나 스스로도 통나무주택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모으거나, 각종 건축 박람회를 다니면서 수집했다. 이때 모은 자료는 지금도 귀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다.

쓰디쓴 경험도 '약'

공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정별 자재와 인력을 수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목 구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인천항에 있는 수입상으로 원목을 구매하러 갔는데 상차하던 중 작은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좋은 원목만을 골라 상차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까다롭게 고른다며 원목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운반차까지 불러놓고 상차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가다가 구입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렀다. 운반차는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원목을 뒤로하고 인천항에서 차를 돌렸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인천항 원목 수입상으로부터 겪은 쓰디쓴 경험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시 전라북도 군산항에 있는 원목 수입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경험 덕분이었는지 여유 있는 말솜씨로 적절한 가격 책정과 좋은 원목을 구매할 수 있었다.

조립에서 오는 희열감, 완성에서 오는 행복

이제 드디어 통나무 가공 작업이 시작됐다. 높게 쌓아둔 원목만 보아도 '이 나무들로 근사한 통나무주택을 지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마냥 행복했다. 하지만 원목 가공 작업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힘도 들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기에 기억에 남는다. 하루는 가족들과 어머니가 현장에 왔다 가셨는데 집사람 이야기가 "어머니가 산에 다녀오시고 나서 장독 청소를 하셨어요. 아들이 추운데 고생하는 걸 보셔서 마음이 안 좋아 그러신 것 같았어."라고 하는 것이다. 새벽밥을 먹고 산에 올라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는 아들이 어머니 눈에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햇살 좋은 봄날에 시작했어도 되었으련만….

그렇게 강행한 마름질은 2005년 10월 20일 시작하여 다음해 1월 13일까지 진행됐다. 함께 엔진톱을 들고 작업했던 기술자들의 노하우와 실력 덕분에 완성도 높은 통나무주택이 될 수 있었다. 전국의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배우고 익힌 실력이다 보니 나 역시 그들 틈에서 점점 목조주택 빌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통나무 골조의 가공을 마무리하고 대형 크레인으로 하나하나 조립해 나갔을 때가 가장 긴장되기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도리, 보, 가새 등은 말 할 것도 없으며 98개나 되는 기둥들이 어느 것 하나 뒤틀리지 않고 잘 끼워 맞춰졌다는 그 성취감이란! 손수 제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희열이다.

이후 서까래를 올리고 지붕과 벽체에 합판을 붙였다. 필요한 부분에 전기설비 작업을 시작했다. 벽체와 지붕의 단열은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인슐레이션(Insulation)을, 내부에는 방화와 마감을 위한 석고보드를 시공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통나무주택이 마무리 됐다.

사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통나무주택 짓기에 도움이 된 적도 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벌여놓았더니 예산이 늘어나고 있었다. 때마침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부품을 가져가도 좋다는 것이다. 행운을 마다할 수가 있나! 다음날 바로 연장을 챙겨 철거 현장으로 갔다. 필요한 부품들을 모델하우스 철거 과정에서 얻게 될 줄이야! 가끔은 이렇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나 보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직접 지은 통나무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벽난로에 불을 지펴 고구마를 구워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추억이 됐다. 그때가 회상되는 통나무 기둥들이 가끔씩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통나무를 가공할 때 날렸던 톱밥들이 아직도 눈보라처럼 기억 속에 날리고 있는 듯하다.

Profile

이상묵 빌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날 통나무학교에 입교했다. 그 후 가족과 고향인 함양으로 '귀산'하고 직접 통나무 주택을 지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후계자, 목조주택 빌더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살면서 목조건축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고 말한다.


4.


5.


6.


3.

3.4. 서까래 작업이 한창이다. 기둥들이 어느 것 하나 뒤틀리지 않고 잘 끼워 맞춰졌다는 것 그 희열감은 아무나 느낄 수 없을 것이다. **5.** 원목을 절단하고, 껍질을 벗기고….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6.** 가끔 통나무 기둥을 보고 있노라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나물인 듯 나물 아닌 나물 같은 너

으레 이맘때쯤이면 식탁 위에는 나물의 향연이 펼쳐질 터.
조금은 지루하고 심심할 법도 한 나물을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향긋한 향기가 가득한 방풍나물, 나물의 대명사라 불리어도 좋을
고사리로 나물의 색다른 변신을 꾀해본다.

요리&스타일링 | 김보선
어시스트 | 박재원

촉촉한 식감 속에 묻어나는 달콤 쌉싸름함

방풍나물 오믈렛(2인 분량)

재료

· 방풍나물 30g, 냉동 손질 새우 3~4마리, 양파 1/8개, 달걀 3개, 소금, 후추, 포도씨유 약간씩
· 방풍나물 양념 : 참기름 1/2작은술, 다진 마늘, 깨소금 1/3작은술, 소금 약간

만들기

❶ 방풍나물 무침을 만든다. 방풍나물은 끓는 물에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고, 잘게 썬다. 여기에 참기름과 다진 마늘, 깨소금과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❷ 냉동 손질 새우는 찬물에 담가 해동한 뒤 큼직하게 썰고, 양파도 큼직하게 다진다.
❸ 볼에 달걀을 깨뜨려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 고루 섞은 뒤, 방풍나물 무침과 새우, 양파를 넣고 섞는다.
❹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❸을 부어 반달 모양의 오믈렛을 만든다.

씹을수록 퍼지는 담백함의 향연

고사리 밀쌈말이(4인 분량)

재료

· 불린 고사리 80g, 잡채용 돼지고기 100g, 당근 5cm 길이 1/2토막, 팽이버섯 1/6봉, 영양부추 5g, 소금, 포도씨유 약간씩
· 고사리 양념 : 다진 마늘 1/3작은술, 국간장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물 2큰술, 깨소금 1/2작은술, 포도씨유 약간
· 돼지고기 양념 : 간장 2/3큰술, 설탕 2/3작은술,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1/3작은술씩, 후추 약간씩
· 밀전병 : 밀가루 1컵, 소금 1/2작은술, 물 1+1/4컵, 포도씨유 약간
· 겨자간장 : 겨자, 물, 식초 1큰술씩, 설탕 2작은술, 간장 1/2작은술

만들기

❶ 고사리나물을 만든다. 불린 고사리는 끓는 물에 넣어 부드럽게 삶은 다음 찬물에 헹궈 건진 뒤, 6cm 길이로 썬다. 다진 마늘과 국간장, 참기름을 넣고 무쳐낸 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고사리를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한소끔 익힌 뒤, 깨소금을 넣고 섞어 완성한다.
❷ 잡채용 돼지고기에는 분량의 양념재료를 넣고 무친 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볶아서 한 김 식힌다.
❸ 당근은 채 썰어 포도씨유를 두른 팬에서 소금을 뿌려가며 볶는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잘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가닥을 떼어내며, 영양부추도 비슷한 길이로 썬다.
❹ 밀전병을 만든다. 볼에 밀가루와 소금, 물을 넣고 고루 섞은 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약간만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 넣어 얇게 부쳐낸다.
❺ 구워진 밀전병에 고사리나물과 돼지고기 볶음, 당근과 팽이버섯, 영양부추를 얹고 말아낸 뒤, 분량의 재료로 만든 겨자장을 함께 곁들여 낸다.



처음 만나는 숲
"아가야, 넌 특별하단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숲태교, 탄생목 심기〉

'인생학교, 숲'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6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로 〈출생기 : 숲태교, 탄생목 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와 태아에게
10개월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따라서 태교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필수항목처럼 여겨지고 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탄생목'을 선물하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마주하게 될
생명 가득한 숲으로 떠나보자.

엄마와 아이에게 좋은 '숲태교'

숲태교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모성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숲태교 프로그램'을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치유의 숲에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에서 걷기, 바람과 물소리 듣기, 숲 향기 맡기, 명상, 체조 등이 있으며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봄, 가을에 임신부 또는 임신부부들이 참여해 태교를 한다. 작년에는 총 24차례 진행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출산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아기에 대한 모성애가 깊어진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❶ 자연 속에서 찾는 여유, 산림욕

숲이 내뿜는 청량하고 상쾌한 기운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욕은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임신 중기의 산모들에게 추천한다. 임신 중기는 태아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로 산림욕을 하면 자연의 소리가 태아의 오감 자극에 도움을 주고 맑은 산소를 공급해 태아의 두뇌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임신부는 태아의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깊게 공기를 마시고 내뱉으며 호흡의 간격은 약 3초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걷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약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❷ 숲에서 즐기는 상쾌한 풍욕 체험

풍욕은 말 그대로 바람으로 하는 목욕이다. 온몸에 바람을 쐬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브리요법(Laubry Therapy)' 또는 '대기요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풍욕은 태아에게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여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피부를 통해 바람을 직접 맞기 때문에 피부의 호흡 작용과 배설, 체온 조절 등에 도움을 주어 임산부에게도 좋은 태교 방법이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산모라면 규칙적으로 풍욕을 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Information

행복한 숲 태교를 위해 아빠가 준비해야 할 것

❶ 사전에 산책로를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 이름 몇 가지를 숙지해 산책할 때 아내에게 알려주세요.
❷ 임신한 아내가 장시간 무리해서 걷지 않도록 적당한 코스를 미리 정하세요.
❸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날이 좋아요.
❹ 물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❺ 숲에서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게 하세요.

❸ 태아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태담 태교

몸이 무겁다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보다는 적당한 산책을 하는 것이 태아와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 산책하기 좋은 시간은 배의 상태가 안정적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적당하다. 태담 태교란 태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과 함께 태아와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는 것은 태아의 두뇌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5개월에 들어서는 태아는 청각과 함께 오감이 발달한다. 따라서 엄마의 감정과 목소리, 외부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책을 읽어주거나 자연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해주는 것도 좋다.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태담할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1.

1, 2.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숲태교. 산림청에서는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숲태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탄생목을 선물하세요!

산림청은 가족들이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기념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는 '탄생목 심기' 행사를 매년 식목일 전후해 추진하고 있다. 탄생목으로는 지역별로 성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정하여 추진된다.

5세 미만의 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탄생목 심기와 함께 나무마다 아이의 이름과, 띠,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새겨진 푯말을 세운 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탄생목 심기를 통해 숲에 대한 소중함을 스스로 배우며, 조금 더 가까이 숲의 가치를 배우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탄생목을 심고 난 후 가족들은 언제든지 찾아가 나무를 가꿀 수 있어 가족 사랑과 함께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대행사로 자연휴양림 내에서는 숲해설 · 숲체험 및 걷기, 명상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이곳을 찾은 가족들에게 의미있고 뜻 깊은 시간을 선사해주고 있다.



Information

산림청 추천 치유의 숲

❶ 청태산 치유의 숲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산1-3
❷ 장성 치유의 숲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
❸ 산음 치유의 숲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고북길 347
❹ 잣향기 치유의 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92-1

1월부터 12월까지.
나만의 탄생목이 있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더 많은 생일별 탄생목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Birth Tree

생일별 탄생목 알아보기

❶ *12.23~01.01 / 06.25~07.04* 사과나무(사랑) 가냘픈 체형에 매력적이고 애교가 많다. 관대하며 걱정 없이 오늘을 사는 풍부한 상상력의 낙천주의자이다. 대담하면서 민감하며 항상 사랑에 빠져 있다. 또한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상대방에게 믿음직스럽고 부드러운 배우자이다.

❷ *01.02~01.11 / 07.05~07.14* 전나무(신비) 비범한 취향과 존엄을 상징한다. 완고하고 자의식이 강하나 주변인을 배려할 줄 안다. 다소 겸손하고 어느 정도의 야망이 있으며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다. 친구도 적도 모두 많은 편이다.

❸ *01.12~01.24 / 07.15~07.25* 느릅나무(고결) 세련된 외모에 잘빠진 몸매, 수수한 성품을 지녔다. 리더십이 있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혼상대로는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배우자다.

❹ *01.25~02.03 / 07.26~08.04* 편백나무(신의) 강하고 융통성 있으며 베풀기를 좋아한다. 낙천적이면서 명예와 재력을 위해 노력한다. 고독을 싫어하며 쉽게 만족할 줄 모르며 성격이 급해 부주의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정열적인 사랑을 꿈꾼다.

❺ *02.04~02.08 / 08.05~08.13 / 05.01~05.14* 미루나무(불확실) 자신감이 부족하나 실은 용감한 성품이 깃들어져 있다. 타인에게 호의적이나 마음속은 매우 까다롭고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 철학적 사고를 즐겨하며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하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❻ *02.09~02.18 / 08.14~08.23* 삼나무(자신감) 미의 극치, 고급스러움을 좋아한다.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알며 수줍음이 없어 결단력과 호소력이 있다.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낙천적인 천성을 지녔다. 진실한 사랑을 기다린다.

❼ *02.19~02.28 / 08.24~09.02* 소나무(독특) 의견일치를 좋아하며 쉽게 타협을 한다. 활동적이며 자연스러운 성격의 소유자. 좀처럼 친해지기는 어려우나 쉽게 사랑에 빠지고 금방 정열을 불태운다. 포기도 쉽게 한다.

❽ *03.01~03.10 / 09.03~09.12* 수양버들(우울) 매력적이며 동정심이 많다. 여행을 좋아하는 몽상가 스타일이다. 변덕스러우나 정직하다. 귀가 얇긴 하지만 삶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며 직관력이 뛰어나다.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여섯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이상벽 씨의 진솔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시간을 기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나무는 흔들바람이 오기를 기다리죠.'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구절이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차숙진(부산시 영도구)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정남진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호에도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소개해주세요.

양동관(광주 서구)



'겉은 쫄깃 속은 부드러운 겨울의 맛'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평소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만드는 방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정성스러운 편집에 감사해요.

이유민(성남시 중원구)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나무들을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마주하는 법'을 읽고 길에서 만나는 나무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손을 대어 그 온기를 느껴보니 소통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호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꽃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다뤄주세요.

윤혜진(안산시 상록구)



나카사키 연말 여행에 관한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국내건 해외건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도록 만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숲을 많이 담아주세요.

김다혜(서울 서초구)



통나무 숲학교 기사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저도 왠지 입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의 노력을 다하며 내 집의 희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의 목표를 '통나무 집 짓기'로 정해봅니다.

김옥기(부산 사하구)

